

Letter from Blacksburg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소식지 제 10호

2026년 10월



2026년 교회에서

블랙스버그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저는 2003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한 이화정입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제가 묵상한 것 중에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려 노력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들의 집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의 순간이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을 찾으며 고민합니다. 그렇게 성경과 기도와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묵상하며 넓고 복잡하게 생각을 펼쳤다가, 저에게 해답이 될 것 같은 묵상의 내용이 생기면, 그 내용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기억하고 꾸준히 삶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서입니다.

그렇게 묵상했던 질문 중 하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 질문도 고민하고 묵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저에게 의미 있는 답을 찾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만 의미 있는 답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다른 깨달음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에 관해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나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너는 누구를 사랑하였느냐?”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주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사랑은 최소한 두가지가 주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그 마음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닮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그 사랑의 행동과 방식을 주께 배운 대로 했는가?

그렇게 주께 배운 대로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한명이라도 주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요한복음 15:9,12,13절, 쉬운 성경]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John 15:9,12,13, ESV] As my father has loved me, so have I loved you. Abide in my love...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some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Continued on pg. 2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예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려 애써므로, 눌린 곳에 있던 나의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건딜 때 따듯함이 되었는가? 또는 그 눌림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데 동행했는가?

[누가복음 4:18-19, 쉬운 성경]

18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Luke 4:18-19, ESV]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름을 얘기할 나의 친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꿈꿉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칭찬을 듣고 싶다고. 나의 적은 능력으로 아등바등 애쓰는 나의 삶이 주께는 사랑스럽기를.

[요한계시록 3:8, 개역 한글] 불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Revelation 3:8, ESV] I know your works. Behold, I have set before you an open door, which no one is able to shut. I know that you have but little power, and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가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듣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희락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주안에서,

이화정 드림



2025 LOGOS 대학부 가을수련회에서



2024 교회 야외예배에서

블랙스버그를 지나가신 분들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챗을 개설했습니다.
“블랙스버그한인교회 Alumni”로
검색하시거나 옆 QR code를 스캔 해주세요.
오픈챗에서 더 편리하게 교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소문자로 kbcb 입니다.



부고:

- 전예영 사모님의 모친 故 이재선님이 9월 6일 소천 하셨습니다.
- Pembroke에서 ‘갈비’식당을 운영하셨던 故 Connie Kim 여사님이 7월 23일 별세하셨습니다.
- 2022 Virginia Tech Ph.D를 졸업한 故 한소영 자매님이 7월 소천 하셨습니다.
-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해주세요:

- 2025년 말에 시작된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 2026년 가을학기 형제 성경공부와 리브가 자매 성경공부에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 브니엘 찬양대에 반주자가 채워지기를
- 임다윗, 문사론 선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K국)

교회 YouTube channel

@koreanbaptistchurchofblack3581 에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온라인 헌금/재정지원

<https://kbcb.us/paypal-헌금>

(Paypal 미국 계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국 교회 주소: 550 North Main Street,
Blacksburg, VA 24060

Mailing address: PO Box 10185, Blacksburg,
VA 24062



2026년 가을 야외예배